동기부여

욕망 이해

사람을 움직이거나 행동하게 하는 힘 또는 어떤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통 동기動機(motive)라 부른다.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과 관련이 있다. 이런 동기에 대한 이해 없이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무척 난감한 처사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덕적 당위성이나 의무만으로 자녀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되레 아이의 성격만 망치게 된다.

사실 동기를 이해하려면 자녀, 아니 인간의 욕구 또는 욕망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구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연구해 왔다. 여기서 그걸 일일이 소개하기는 벅차지만 잘 알려진 연구에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론이 있다. 생리적 욕구(식욕·성욕·수면·배설·활동), 안전의 욕구(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안전), 소속감과 애정 욕구(애정·친화·소속감), 자아 존중 욕구(승인·지위·존경·명예), 자아실현 욕구(자기완성, 삶

의 보람)가 그것이다. 알더퍼Alderfer는 이것을 존재 욕구(E), 관계 욕구(R), 성장 욕구(G)로 재구성하였다.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이 연구는 인간의 욕구랄까 욕망은 육체적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지적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인간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데, 거기에는 낮은 단계의 육체적 쾌락에서 높은 단계의 정신적 쾌락까지 이어진다. 고대 서양철학의 학파 가운데는 후자를 삶의 궁극 목표로 삼기도 했다. 피라미드의 끝에 올라가는 인간은 극소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인간의 발달 또는 성장의 정도에 따라 욕망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서 유아인 자녀의 욕망과 청년인 자녀의 욕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동기부여 또는 동기유발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선생을 비롯한 유학자들은 육체적 욕망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려고 하였다. 욕망을 다른 말로 인욕人欲이라 하였고, 그와 관련된 마음을 인심人心이라 불렀다. 반면 인욕과 반대편에 있는 가치를 천리天理라 불렀고, 인심 반대편의 마음을 도심道心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인간을 바람직한 행위를 이끄는 논리가 이런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 것이었다.

앞의 글에서 선생의 『격몽요결』의 「혁구습장」을 보면, 인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욕구·욕망이다. 가령

놀기와 술 마시기와 칭찬받기와 오락과 부자 되기와 높은 지위와 좋은 음식과 화려한 옷과 성욕 따위는 모두 그런 것들이다. 선생이 따르는 성리학의 수양론에서는 모두 억제·조절해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욕망을 억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욕망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되레 본성을 억압하는 꼴이 되어 훗날 앙갚음, 곧 심리적 병리 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현대의 교육론도 그것을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면 욕망은 없애거나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배출구를 통해 해소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간은 정당한 욕망을 충족하거나 욕구를 해소할 때 건강하게 된다는 학문적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아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이가 바람직하게 성장하려면 욕망과 관련지어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동기는 각자의 욕망·욕구 해소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욕망이 인간 행위의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보상과 벌

그렇다면 자녀에게 어떤 욕망이 있을까? 앞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아이들의 욕구는 대개 피라미드의 하부에 속하는 생리적 욕구인 식

욕·수면·배설·활동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인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안전을 바라는 욕구가 주도할 것이며, 좀 더 자라면 소속감과 애정 욕구도 싹틀 것이다.

선생이 살았을 때 아이들의 욕구는 어땠을까? 선생의 『소아수지』을 통해 역추적할 수 있다. 곧 선생이 당시 교육관에서 아이들에게 금지하거나 고쳐야 할 내용 가운데 그 욕망이랄까 욕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놀기 좋아한다는 점이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노는 것은 일종의 생리적 욕구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준다. 또 늦잠 자는 일도 있는데, 이 또한 생리적 욕구이다. 형을 공경하지 않고 형제끼리 싸우는데, 이는 아마도 음식과 의복과 물건 등을 두고 다투었을 것이다. 또 부모의 명을 곧장 따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부모의 명령과 자신의 욕구 사이의 갈등에서 부모의 그것이 부차적으로 밀렸기 때문이리라. 또 행동이 공손하지 않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행동하는 일도 생리적 욕구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책 읽기를 게을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욕구가 독서 동기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욕구는 대동소이하다. 먹는 것, 노는 것, 잠자는 것, 활동 등이 그것이다. 다만 그 대상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필자가 예전에 어떤 아이에게 들은 말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곧 "우리에게는 맛있는 과자와 노는 장난감도 많은데, 어

른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어떤 친구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과자보다 술이 더 맛있고, 자동차는 어른 장난감이고, 남녀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웃었다.

그래서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려면 이런 욕망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보상이다. 이는 부모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흔히 가정에서 많이 하는 보상에는 과자나 간식·선물·돈·칭찬 등을 사용한다. 사실 반려견을 훈련할 때도 먹이를 갖고 한다. 그래도 인간 유아의 지능은 개보다 나으니 이런 다양한 보상을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사용하는 동기유발에는 벌이 있다. 실험용 생쥐를 미로 안에 넣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전기충격으로 벌을 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빨리 찾았다고 한다. 이걸 교육에 적용하면 일종의 벌칙이 된다. 체벌만이 꼭 벌은 아니다. 부모와 협상에서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에게 주어지는 불이익도 벌에 해당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이런 물질적이고 외적인 보상과 벌은 동기부여에 유효하게 작용한다. 심지어 성인도 직장에서 연봉을 올려주거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성과를 올린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보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는 되레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에 따라 욕구가 변하고 또 다양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보상은 본인의 내면에 기쁨을 주는 데 한계가 있고, 더구나 내면의 성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

른 동기부여의 접근이 요구된다. 자녀가 자랄수록 외적 보상은 한계가 노출되는데, 이때 성장한 자녀라면 자신을 어린애로 취급한다고 역정을 낼 것이다.

흥미와 호기심 진작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참 많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뭐야?'라고 묻는 아이들이 있다. 이때 '똑같은 것을 왜 자꾸 물어? 아까 말했잖아.'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그 나이 때 아이는 주변의 모든 물건이 신기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사실 이점은 인간만이 아니라 다수의 동물도 그러하다. 아마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전자에 녹아든 전략일 것이다. 해서 이런 호기심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을 더듬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을 많이 보았다. 부모는 아이의 호기심을 길러 주어야 하는데도, 어릴 때부터 천재교육이니 조기 교육을 한다고, 그것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다.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에 가면 이른바 잘 가르친다는 일부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학원에 가면 무지막지하게 호기심의 뿌리까지 파내버린다. 머릿속에 정답만을 쏙쏙 집어넣기 위해서다. 그래서 학원이 학교보다 잘 가르친다는 속설이 생겼다. 대학입시만을 고려한다면 그 말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학생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비극이다! 사실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도 이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사회는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적응하며 새로운 정답을 찾아내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전설 같은 증거가 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수긍할 것 같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똑똑하게 잘 가르친다는 담임이 맡은 반 아이들의 성적은 항상 별로였다. 반면 어눌하고 말도 더듬는 그런 교사가 담임한 반의 학생들은 성적은 오히려 좋았다. 나중에 어느 교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똑똑한 담임은 정말로 설명을 잘하여 정답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 주어서 학생들은 불만이나 불평 없이 수업에 임했지만, 어눌한 담임의 반 학생들은 답답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런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었다. 전자의 경우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호기심 없이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정작 시험을 볼 때는 남이 떠먹여 준 것은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후자는 학생들이 답답하여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쓴 결과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곧 자기주도적 학습이 된 경우였다. 오늘날 잘 가르친다는 학원 교육도 대부분 이런 꼴이다. 물론 학원에 다녀서 입시에 성공한 학생이 있는데, 정작 그 원인은 학생 자신의 자질이 이미 훌륭했기 때문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효과일 뿐이다.

호기심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하면, 동기부여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호기심이 제대로 충족되면 물질적 외적 보상보다 훨씬 낫다. 내적인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해서 자녀들이 공부나 일할 때 흥미가 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그 일에 매진하게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알량한 지식 공부, 정해지 답 맞히는 요령을 가르치기 위해 호기심의 싹을 자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자녀가 바람직한 일을 하게 하려면 흥미와 함께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 일은 해당하는 아이의 취향과 적성에 맞을수록 유리하다. 부모가 좋아한다고 자녀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켜보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유명한 음악가들 가운데도 부모가 의사나 법률가나 사업가 등을 만들려는 사람이 꽤 있었다.

호기심과 흥미 등은 정신적·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은 일단 호기심을 키워주어야 하고, 그 싹을 자르지 말아야 하며, 하는 일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하고, 내적인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일에는 자연 탐구, 동식물 기르기, 작품 만들기, 예술 활동, 여행, 운동, 독서, 도전과제 해결하기 등 자녀의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흥미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에 따른 보상도 외적·물질적 보상보다 정신적 보상이 좋다. 가령 노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아주기, 존중하기, 인정 등의 높은 단계의 욕구 성취에 부합하는 것이면 좋다.